

#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분석

- 연금퍼즐 및 은퇴준비 제약비용을 중심으로-

나혜림\* · 최현자\*\*

## I. 서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및 고용불안의 증대 등으로 인해 가능한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은퇴준비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4)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7.3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4.1명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보이며, 2060년에는 노령화지수가 394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핵가족화의 심화 및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퇴조로 인해 노후생활을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퇴 이후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법은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후에 지속적으로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연금소득의 확보를 통해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의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은퇴준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은퇴설계에서 연금이 중요한 이유로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의 시기에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은퇴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점, 특히 종신연금의 경우 사망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소득을 제공해줌으로써 장수리스크의 위험을 방어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 연금은 은퇴 이전에 미리 은퇴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준비해둔 것으로서 은퇴 이후에는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최현자 외 7인, 2014).

이와 같이 은퇴설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의 도입을 시작으로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nhr110@snu.ac.kr)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hychoe@snu.ac.kr)

1994년에는 개인연금, 2005년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차례로 도입하며 외형적으로 다층연금체계의 틀을 갖추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만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사적 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층 보장체계의 연금을 모두 확보한 가계는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은퇴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은퇴 준비 영역 중 경제적 준비가 가장 기본적인 준비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영역의 은퇴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연금의 가입을 통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비자가 연금화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연금피플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자녀 교육비용 및 결혼비용, 주거비용 등이 과다하여 에듀 푸어, 하우스 푸어 등의 신조어가 생기는 등 특정 항목의 지출 부담이 과중하여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금피플과 은퇴 준비의 제약요인으로 기능하는 지출부담 관련 특성에 초점을 맞춘 실증연구를 통해 비은퇴자의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특성을 알아보고, 연금가입에 취약한 가계 및 안정적으로 3층 연금 보장체계를 확보한 가계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은퇴자의 연금가입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개별연금 가입여부와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그간 연금 가입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는 3층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특정한 유형의 연금가입의 영향요인만을 다룬 경우가 많았으며, 국내에서는 연금피플 및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금 가입구조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노후소득보장과 다층연금체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의 필요성은 1994년 세계은행에 의해 제기되었다. 세계은행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각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층연금체계의 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지만, 형태는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모든 국가가 다층연금체계의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 핵심 사항으로 강조되었다. 이 시기 세계은행은 3층 구조의 다층연금체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1층은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법적 기초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연금의 영역으로, 소득의 재분배 및 장기적

불황, 인플레이션, 사적 시장 실패에 대응하여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2층은 의무 적용되는 완전적립 방식의 사적연금으로 구성되며 저축과 공동보험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마지막 3층은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완전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층으로 노후에 보다 많은 소득과 보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한다(Pordes, 1994).

이후 2005년 세계은행은 1994년에 제시한 연금개혁 모델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5층 체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5층 모형은 최소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비기여 사회연금으로 구성되는 0층, 강제 적용되는 공적연금인 1층, 강제 적용되는 직역연금 혹은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2층, 다양한 형태를 띠는 유연한 자발적 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가족 내 혹은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에 해당하는 4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개선은 노인 취약계층의 기초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의무 연금 체계 내/외의 모든 개인에게 향상된 시장 기반의 소비 평활화 기제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층연금체계를 통해 빈곤의 감소와 소득의 평활화 등으로 구성되는 연금 시스템의 다양한 목적들을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으며, 각 연금 체계가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인구·통계학적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평가하였다(Holzmann et al., 2005).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외형적으로 다층연금체계의 틀이 갖추어 졌다.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은 모든 경제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교원 등 사회 공공재를 생산하는 특수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2층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2005년 12월 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권을 보장하여 퇴직금이 노후 생활자금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마지막 3층의 연금제도인 개인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처럼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다층연금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존의 공적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지급률이 낮아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상당히 취약하고, 선진국에 비해 수급 연금액의 수준이 낮은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에(이용하, 2011),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층연금체계를 실질적으로 균형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2.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영향요인

본 연구는 연금피플과 은퇴준비 제약비용 관련 요인에 중점을 두어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양한 영향요인 중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설정한 연금피플과 은퇴준비 제약비용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본 후, 그 외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연금피플 관련 요인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은퇴자산이 생존하는 동안 소진될 경제적 위험을 의미하는 장수리스크 하에서 이를 관리하면서 평생 동안 소득의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은퇴자산의 연금화이다. 그러나 은퇴자산을 연금화하는 것이 이성적인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들이 연금화를 기피하는 행동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를 연금피플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금피플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① 연금수리적 공정성의 부족, ② 인플레이션 위험, ③ 유산상속 동기, ④ 선호체계 내 습관의 형성, ⑤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연금지급, ⑥ 불확실한 의료비 지출 가능성, ⑦ 유동성 부족 등이 있다(Inkermann, et al., 2011).

경제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종신연금보험이 최적인 상태가 되는 경우를 제시한 Yarri(196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장수위험에 직면하고 다른 연금 혜택이 없으며, 유산 상속의 동기가 없고, 연금이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때 연금보험이 소비자에게 최적 선택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이러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금피플 관련 요인 중 먼저 상속동기 관련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소현(2011)은 상속동기를 포함하여 개인연금의 보유 및 불입액의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서 실시한 2007년 투자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은퇴자의 개인연금보유의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와 재무설계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상속동기가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월평균저축액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몇몇 국외연구(Brown, 2001; Hurd, 1987;1989)에서 또한 상속동기가 종신연금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Lockwood(2012)는 Yarri(1965)의 모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여 유산상속의 동기가 제한된 연금 수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Friedman and Warshawsky(1990) 역시 개인에게 다른 연금혜택이 없고 자녀가 없어서 유산상속의 동기가 없을 때, 연금이 개인에게 최적의 선택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Inkman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부의 수준, 기대 수명,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가입 또한 증가하고, 다른 연금 혜택이 존재하거나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 동기가 존재할 경우, 연금 가입이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상속동기가 연금가입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연금퍼즐을 바탕으로 연금가입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연금퍼즐 관련 요인 중 두 번째 특성은 건강위험과 보험이 연금수요 미치는 영향이다. 연금퍼즐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고령 은퇴자의 자산배분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 이경우(2013)의 연구에서는 종신연금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건강과 관련된 충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종신연금의 낮은 수요를 야기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은퇴자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해야할 경우에도 연금의 유동성부족으로 인해 이를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신연금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수요가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 뒤,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만약 은퇴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상당히 감소시켜 주는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미래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연금 구입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과 건강보험 가입 특성이 실제로 연금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속동기가 연금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는 반면, 다층연금체계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위험이나 건강보험과 연금가입 행동을 연결 지어 살펴본 연구 또한 수행되지 않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금퍼즐 관련 특성 중 상속동기 관련 특성과 건강위험 인식 및 건강보험 특성이 연금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연금뿐만 아니라, 다층연금체계를 바탕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연금가입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은퇴준비 제약비용 관련 요인

생애자원제약 하에서 소비를 최적화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가정하는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 생애에 걸쳐서 소비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소비의 평활화를 선호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생애에 걸쳐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의

흐름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미래로 이전시킬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의 소비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마련,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욕구가 지나치게 높아 주거비와 자녀 교육 및 결혼관련 비용의 지출이 과다하고, 이에 따라 노후로 이전시키는 소득의 양이 줄어들어 은퇴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계지출 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에서 실시된 1999 retirement confidence survey를 분석한 Greenwald et al.(1999)은 은퇴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과 같은 의무감이 저축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음을 제시하였다(Morgan & Eckert, 2004, p.4에서 재인용).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의 3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재정관련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대비 교육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를 바탕으로 측정된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이혜자, 2013)가 존재한다. 분석결과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은 3가지 유형으로 측정된 노후준비정도의 모든 지표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지출의 부담이 클수록 저축과 금융자산, 부동산자산을 통한 노후준비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세 가지 유형의 노후준비정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두 가지 유형의 지출 부담 중 주거비 지출 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 응답으로 ‘자녀 교육이 끝나면서부터’가 35.8%를 차지하였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부터’가 23.4%, ‘집을 장만하고 나서부터’가 17.4%로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은퇴이전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자금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비용과 주거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출 부담이 은퇴대비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는 한편, 은퇴준비 제약비용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은퇴준비 방법 중 하나인 연금가입 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을 포함하여 개별연금의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연금가입 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 3) 그 외 영향요인

김성숙(2009)은 공적, 퇴직, 개인연금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개인의 노후소득보장 형태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1차 자료를 사용하여 50대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공적연금 가입여부, 퇴직금 적용여부, 개인연금 가입여부의 세변수로 이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연금 유형, 공적연금유형, 공적연금+퇴직금 유형, 3층노후소득보장형의 4가지 유형이 추출되었다. 이 중 바람직한 유형인 3층노후소득보장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남성, 대졸이상, 50대초반, 전문관리직이나 기술사무직, 5천 700만원의 연가계소득 보유의 특성을 갖고 있었고, 주로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을 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금융자산 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연금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비록 단변량 분석에 그치긴 했으나 다양한 연금가입 구조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고령화연구패널을 사용하여 임금근로자의 다층연금체계 가입유형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안수란(2008)의 연구에서는 연금가입 유형을 김성숙(2009)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45세 이상 60세 미만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자특성과 사업체 특성이 연금가입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가입에서 1층 가입, 1층 가입에서 1+2층 가입, 1+2층 가입에서 1+2+3층 가입으로의 단계적 이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고용형태, 근속연수, 월평균임금, 사업체규모, 노조유무, 비법정 복지후생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층 연금가입 유형에서 마지막 1+2+3층 연금가입으로의 연금이행의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가,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1+2+3층 연금가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약계층과 월평균 임금이 높은 사람이 보다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2-4차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 및 특성을 분석한 전희정·임란(2011)의 연구에서는 연금가입 유형을 크게 8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연금미가입, 1층 가입, 2층 가입, 3층 가입, 1+2층 가입, 1+3층 가입, 2+3층 가입, 1+2+3층 가입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분류를 통해 다양한 직군의 조사 대상자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금가입유형을 검토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연금미가입과 1층 국민연금만 가입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취약한 다층연금체계의 현실을 보여주었으며, 성별·소득수준·연령·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상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른 다층연금 가입구조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한 결과, 1+2+3층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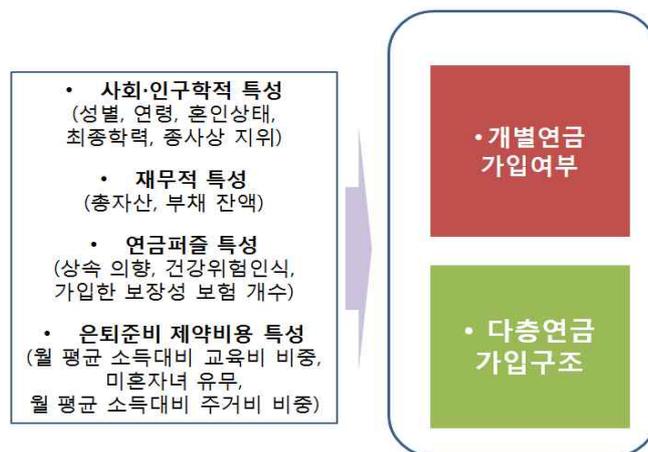
충연금 가입유형은 상용직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성, 일반 가구, 대졸이상, 30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높은 가입비율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개별 연금제도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3가지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안수란(2008)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든 분석이 단변량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재무적 특성만을 분석하여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3가지 연금제도를 종합하여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를 분석하되, 이러한 연금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요인들에 연금퍼즐 관련 특성과 은퇴준비 제약비용 관련 특성을 함께 포함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비은퇴자의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별연금 가입여부를 알아본 뒤, 이를 바탕으로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를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연금퍼즐 특성,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인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는 <그림 1> 및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서울대-삼성생명 은퇴지수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5-65세의 기혼 비은퇴자 1,292명으로, 상속동기 특성이 자녀에 대한 상속의향을 바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비은퇴자 중 기혼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서울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에 거주하는 가계 금융 및 재무의사결정권자로 인구·지역·연령·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비례할당 표집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온라인 조사 및 일대일 면접(만 25세 이상 49세 이하-온라인 조사, 만 50세 이상 75세 이하-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 방법이 사용되었다.

### 2) 변수의 설정

#### (1)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 관련 변수

먼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여부를 바탕으로 개별연금 가입여부를 알아본 뒤, 이를 활용하여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를 파악하였다. 각 연금의 가입 여부를 바탕으로 모든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형, 개별 연금만 가입한 공적연금형·퇴직연금형·개인연금형으로 구성된 3가지 유형, 2가지 연금을 조합하여 가입한 공적+퇴직연금형, 공적+개인연금형, 퇴직+개인연금형으로 구성된 3가지 유형, 마지막으로 3층의 연금에 모두 가입한 3층 보장형의 총 8가지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 (2) 영향요인 관련 변수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특성으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연금퍼즐 특성,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이 있으며 분석을 실시할 때 연속변수는 형태 그대로 활용하고, 이산변수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종사상 지위이다. 연령은 연속변수의 형태로 분석되었으며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혼인상태는 기혼과 이혼 및 사별로 나누어 기혼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종사상 지위의 경우, 고용주 및 자영업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종사자로 구분한 뒤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종사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 ② 재무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재무적 특성은 총자산과 부채 잔액으로, 총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자산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2가지 변수는 모두 연속변수 형태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분석에 그대로 활용되었으며, 이 때, 자산과 부채의 분포를 고려하여 자산의 단위는 천만 원, 부채의 단위는 백만 원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③ 연금퍼즐 특성

연금퍼즐 특성은 크게 상속동기관련 특성과 건강위험 및 건강보험관련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상속동기관련 특성은 앞으로 자녀에게 토지나 주택 등 현물이나 현금을 상속(사망 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고, 상속 의향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더미변수 처리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건강위험 특성의 경우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1점(매우 좋은 편이다)에서 5점(매우 나쁜 편이다)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각각 평가하게 한 후, 두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즉, 건강위험인식 변수는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지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위험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속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관련 특성은 현재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질병보험, 통합보험, 상해보험, 의료실비보험,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장성 보험의 가입 여부를 측정한 뒤 가입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산하여 해당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단순히 건강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보장의 범위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특성이 연금가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 ④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은 우리나라의 지출 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와 관련된 비용지출과 주거와 관련된 비용지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자녀와 관련된 비용지출 중 교육비 부담은 한 달 생활비 중에서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자녀 결혼비용 변수는 미혼자녀의 유무로 대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부담의 경우,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관리비, 난방비, 가스요금 등의 비용을 합한 뒤, 해당 주거비가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 3) 분석방법

소비자의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개별연금 가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금가입의 단계적 이행을 알아보기 위해 무연금형, 1층 가입형, 1+2층 가입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지나치게 비중이 작은 유형의 경우 분석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도출된 8가지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 유형 중 응답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유형을 중심으로 결정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기혼 비은퇴자 1,292명이며 이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특성 중 상속의향의 경우에만 결측값이 존재하여 상속의향은 1,194명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9.1%와 50.9%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45.6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61.1%로 고졸 이하(38.9%)보다 22%가량 많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31.0%로 그 뒤를 이었다. 임시 및 일용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종사자는 각 7.6%와 4.1%로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평균 자산은 약 4억 4,289만원, 평균 부채잔액은 약 2,50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분포를 살펴보면 4억 이상의 자산을 지닌 사람이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억 이상 2억 미만과 2억 이상 3억 미만이 20.4%와 18.5%로 그 뒤를 이었다. 부채의 경우에는 부채가 없는 응답자가 54.9%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4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닌 응답자가 21.3%를 차지하였다.

연금피플 특성의 경우, 먼저 건강위험 인식의 평균 점수는 2.36점으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은 편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좋은 편이다’와 ‘그저 그렇다’의 사이인 2점 이상 3점 미만의 응답자가 6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3점 이상 4점 미만이 24.9%로 뒤를 이어 321명의 응답자가 자신의 건강을 ‘그저 그렇다’와 ‘나쁜 편이다’의 사이 범위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2.41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가 3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개와 1개씩 가입한 응답자가 19.7%와 18.2%로 그 뒤를 이었

다.

상속동기 특성의 경우, 상속의향이 없는 응답자가 62.7%, 있는 응답자가 37.3%로 상속의향이 없는 응답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와 관련된 비용부담 변수에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13.76%를 자녀의 교육비에 사용하고 있었고, 자녀의 결혼비용의 대리 변수인 미혼자녀 유무의 경우, 미혼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84.2%로 없는 응답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주거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월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의 평균은 8.73%로 월 평균 소득의 5%이상 10%미만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응답자가 4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N=1,292)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635(49.1)	혼인 상태	기혼	1,221(94.5)
		여성	657(50.9)		이혼 및 사별	71(5.5)
	연령	25-34세	170(13.2)	종사상 지위	고용주 및 자영업자	400(31.0)
		35-44세	407(31.5)		상용직 임금근로자	741(57.4)
		45-54세	464(35.9)		임시 및 일용 임금 근로자	98(7.6)
		55-64세	240(18.6)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종사자	53(4.1)
65-75세		11(0.9)				
	평균(S.D.) 단위: 세	45.68(9.42)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03(38.9)				
	전문대졸 이상	789(61.1)				
재무적 특성	총자산	1억 미만	229(17.7)	부채 잔액	없음	709(54.9)
		1억 이상 2억 미만	263(20.4)		2천만원 미만	142(11.0)
		2억 이상 3억 미만	239(18.5)		2천만원-3천만원 미만	83(6.4)
		3억 이상 4억 미만	152(11.8)		3천만원-4천만원 미만	83(6.4)
		4억 이상	409(31.7)		4천만원 이상	275(21.3)
		평균(S.D.) 단위: 만원	44,288.61 (89,961.22)		평균(S.D.) 단위: 만원	2,504.58 (5,225.02)
연금 퍼즐 특성	건강 위험 인식	1점이상 2점미만	125(9.7)	가입한 보장성 보험 개수	0개	105(8.1)
		2점이상 3점미만	816(63.1)		1개	235(18.2)
		3점이상 4점미만	321(24.9)		2개	388(30.0)
		4점이상 5점미만	29(2.2)		3개	255(19.7)
		5점	1(0.1)		4개	205(15.9)
			평균(S.D.) 단위: 점		2.36(0.61)	5개
				평균(S.D.) 단위: 개	2.41(1.38)	
상속 의향	없음	749(62.7)				
	있음	445(37.3)				
계		1,194(100)				
은퇴 준비 제약 비용	월평균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	5%미만	429(33.2)	월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5%미만	311(24.1)
		5%이상-10%미만	137(10.6)		5%이상-10%미만	550(42.5)
		10%이상-15%미만	201(15.6)		10%이상-15%미만	275(21.3)
		15%이상	525(40.6)		15%이상	156(12.1)
		평균(S.D.) 단위: %	13.76(13.74)		평균(S.D.) 단위: %	8.73(6.33)

특성	미혼	없음	204(15.8)
	자녀 유무	있음	1,088(84.2)

#### IV. 연구 결과

##### 1.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특성

결정요인 분석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연금가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개별연금의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먼저 개별연금 가입여부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은 가입율이 84.1%에 달하였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율은 각각 47.8%와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적연금에 비해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두 연금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원인을, 공적연금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연금 유형으로 소득 활동과 연계되어 자동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한편, 개인 연금은 자발적인 가입 노력이 필요하고, 퇴직연금은 종사하는 직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미흡한 연금가입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가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2> 개별연금 가입여부

(N=1,292)

개별연금 가입여부		빈도(%)
공적연금	미가입	205(15.9)
	가입	1,087(84.1)
퇴직연금	미가입	811(62.8)
	가입	481(37.2)
개인연금	미가입	674(52.2)
	가입	618(47.8)
계		1,292(100)

다음으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다층연금체계의 가입 구조를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류를 진행한 결과 1층에 해당하는 연금만 가입한 공적연금형이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층과 3층 연금에 동시에 가입한 공적+개인연금형과 1, 2, 3층의 연금에 모두 가입한 3층 보장형이 모두 22.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유형이 13.5%를 차지하였고, 그 외 퇴직연금만

가입한 유형이나 개인연금만을 가입한 유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결합하여 가입한 유형은 모두 5% 미만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3가지 유형의 연금 중 어떠한 유형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형은 11.2%를 차지하였는데, 본 연구와 동일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를 분석한 연구(전희정·임란, 2011)와 비교해 볼 때, 무연금형의 비중은 낮고 다층보장형의 비중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연금 가입 현황이 보다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11.2%의 응답자가 어떠한 연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접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경우 8가지 유형의 분포의 차이가 크고, 특히 3가지 유형의 비중이 5% 미만으로 너무 적은 수를 차지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분석은 일정 이상의 응답자가 확보된 무연금형, 공적연금형, 공적+퇴직연금형, 공적+개인연금형, 다층보장형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누락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포함된 가입유형의 특성의 경우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분석에 앞서서 진행될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표 3〉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

(N=1,292)

연금 가입유형	빈도(%)
무연금형 (연금 미가입)	145(11.2)
공적연금형(1층 가입)	340(26.3)
퇴직연금형(2층 가입)	14(1.1)
개인연금형(3층 가입)	40(3.1)
공적+퇴직연금형(1+2층 가입)	175(13.5)
공적+개인연금형(1+3층 가입)	286(22.1)
퇴직+개인연금형(2+3층 가입)	6(0.5)
다층보장형(1+2+3층 가입)	286(22.1)
계	1,292(100)

## 2.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

3가지 종류의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가입을 기준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적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금퍼즐

특성,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이혼 및 사별에 비해 기혼인 응답자가,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무급가족 종사자 및 기타종사자에 비해 상용직 임금근로자일 경우 공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및 사별에 비해 기혼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가계를 운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고용상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공적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보다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금퍼즐 특성의 경우 가입한 보장성 보험 개수와 상속 의향 특성이 유의한 특성으로 나타나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한편, 상속의향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있는 응답자는 공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연금퍼즐의 이론적 설명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고 보장의 범위가 클 경우에는 건강 악화로 인해 야기될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을 통한 노후 준비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속의향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금가입에 보다 소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에서는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준비 제약비용 중 주거와 관련된 부담이 연금가입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연금유형인 퇴직연금 가입여부의 영향요인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연금퍼즐 특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이, 무급가족 종사자 및 기타종사자에 비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고용주 및 자영업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직장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금퍼즐 특성의 경우, 건강위험인식이 낮고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퇴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건강위험을 낮게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의료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고, 기대 수명을 더 길게 평가하여 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다 높게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보장성 보험 개수의 영향력은 공적 연금가입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금퍼즐 특성,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 가입 확률이 더 낮아지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과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금퍼즐 특성에서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여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입 및 유지 중인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의 수요가 건강보험 보유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에서는 공적연금 가입여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이 연금가입의 장애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별 연금 가입여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최종학력이 세 가지 연금의 가입 여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로 밝혀져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의 연금 가입을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상태가 이혼 및 사별인 응답자와 종사상 지위가 비교적 안정적이지 않은 응답자 및 고연령층의 개별연금 가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금퍼즐 특성에서는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3가지 유형의 연금 가입여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가입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으며, 상속의향 및 건강위험인식 또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오던 연금퍼즐의 다양한 원인 특성을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은퇴준비 제약비용의 경우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은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자녀의 교육 및 결혼비용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관련 비용 부담보다는 주거비 부담이 연금가입을 저해하는 보다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표 4〉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

(기준: 미가입, N=1,192)

특성	변수	구분	연금 종류					
			공적연금 가입 (N=1,087)		퇴직연금 가입 (N=481)		개인연금 가입 (N=618)	
			b	Exp(B)	b	Exp(b)	b	Exp(B)
사회·인구	여성 (남성 기준) 연령	이혼 및 사별 (기혼 기준)	-0.040	.960	-.378*	.685	.106	1.112
			-0.005	.995	-.008	.992	-.058***	.944
			-.614*	.541	.062	1.064	.225	1.252

학적 특성	최종학력 (고졸 이하 기준)	전문대졸 이상	.576*	1.779	.663***	1.940	.530*	1.700
	종사상 지위 (무급가족 종사자 및 기타종사자 기준)	고용주 및 자영업자	-.128	.880	-1.583***	.205	.337	1.401
		상용직 임금근로자	.814*	2.256	1.063**	2.896	.433	1.542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340	.711	-.136	.873	.050	1.051
재무적 특성	총자산 (단위: 천 만원)		.002	1.002	.001	1.001	.002+	1.002
	부채 잔액 (단위: 백 만원)		-.001	.999	-.001	.999	-.002	.998
연금 폐출 특성	건강위험인식		-.231	.794	-.293*	.746	-.017	.983
	가입한 보장성 보험 개수		.235*	1.265	.117*	1.124	.326***	1.386
	상속 의향 있음 (없음 기준)		-.573*	.564	-.125	.883	.161	1.175
은퇴준 비계약 비용 특성	월 평균 소득대비 교육비 비중		.010	1.010	.004	1.004	.007	1.007
	미혼자녀 있음 (없음 기준)		-.244	.783	-.369	.692	-.093	.911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		-.028*	.973	.008	1.008	-.027*	.974
-2 Log likelihood $\chi^2$	Coxand Snell $R^2$		875.36	.116	1192.71	.267	1416.46	.177
	Nagelkerke $R^2$		146.50***	.201	369.66***	.365	231.50***	.236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3.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개별연금의 가입여부를 조합하여 유형화한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8가지 유형의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 중 일정한 비율이 확보된 무연금형, 1층 가입형, 1+2층 가입형, 1+3층 가입형, 다층보장형의 5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유형에서 1가지 연금을 보유한 유형으로, 1가지 연금을 보유한 유형에서 2개의 연금을 조합하여 보유한 유형으로, 마지막으로 2가지 연금을 보유한 유형에서 3가지 연금에 모두 가입한 유형으로의 단계적 이행을 살펴보기 위해 총 3번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기준 변수는 무연금형, 1층 가입형, 1+2층 가입형이며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연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연금형에서 공적연금만을 보유한 유형으로 이행하게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금폐출 특성과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의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무연금형 보다 공적연금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져 연금폐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공적연

금에 가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연금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적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연금으로, 대다수의 경우에 해당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서부터 연금 가입구조의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가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이처럼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적연금의 가입에 다른 요인보다도 연금퍼즐 특성과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상속의향과 자녀의 결혼비용 부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 가지 유형의 연금에 가입하였던 사람이 두 가지 연금을 조합하여 가입하게 만드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층 가입 유형을 기준으로 1+2층 가입과 1+3층 가입 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1층 가입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1+2층 가입 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연금퍼즐 특성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무급가족 종사자 및 기타종사자에 비해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1층 가입에 더하여 퇴직연금까지 가입할 확률은 낮아지는 한편, 가입한 보장성보험 개수가 많아질수록 퇴직연금까지 가입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적연금만 가입한 가계가 추가적으로 개인연금까지 가입하게 만드는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금퍼즐 특성,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으로 밝혀졌다. 연령과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적연금 가입에 더하여 개인연금까지 추가로 가입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개인연금의 추가 가입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심변수로 설정한 연금퍼즐 특성과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의 영향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심특성 이외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연금가입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표 5〉 1층 · 1+2층 · 1+3층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특성	변수	구분	연금 가입구조					
			1층 가입(N=327) (기준: 무연금형)		1+2층 가입(N=157) (기준: 1층 가입)		1+3층 가입(N=265) (기준: 1층 가입)	
			b	Exp(B)	b	Exp(b)	b	Exp(B)
사회·인구학적 특성	여성 (남성 기준)		.139	1.149	-.581*	.560	-.047	.954
	연령		-.008	.992	-.004	.996	-.064***	.938
	이혼 및 사별 (기혼 기준)		-.638	.528	.175	1.191	.183	1.201
	최종학력 (고졸 이하 기준)	전문대졸 이상	-.031	.969	.336	1.399	.366+	1.441
	종사상 지위 (무급가족)	고용주 및 자영업자	.498	1.645	-2.983***	.051	.106	1.111

	종사자 및 기타종사자 기준)	상용직 임금근로자	.414	1.514	.990	2.690	.377	1.458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000	1.000	-.512	.599	-.606	.546
재무적 특성	총자산 (단위: 천 만원)	.005	1.005	-.004	.996	.000	1.000	
	부채 잔액 (단위: 백 만원)	.000	1.000	-.001	.999	-.001	.999	
연금 퍼즐 특성	건강위험인식	-.205	.815	-.181	.834	.092	1.096	
	가입한 보장성 보험 개수	.085	1.089	.188*	1.207	.344***	1.411	
	상속 의향 있음 (없음 기준)	-.587*	.556	-.220	.802	.186	1.205	
은퇴준 비계약 비용 특성	월 평균 소득대비 교육비 비중	.003	1.003	.003	1.003	.008	1.008	
	미혼자녀 있음 (없음 기준)	-.628*	.534	-.134	.874	.339	1.403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	-.008	.992	.009	1.009	-.035*	.966	
-2 Log likelihood	Coxand Snell $R^2$	2.916.99				.422		
$\chi^2$	Nagelkerke $R^2$	623.78***				.44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유한 가계가 개인연금까지 보유하게 만드는, 즉 3층보장형으로의 단계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2층 가입형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연금퍼즐 특성이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으며,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 중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은  $p < .1$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1+2층 가입 유형에 비해 1+2+3층 가입 유형에 속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분석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요인으로 고령층 및 학력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이 개인연금 가입에 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재무적 특성의 경우 총자산이 많을수록 다층보장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연금의 유동성 제약에 의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연금을 보다 많이 보유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경우, 2013)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연금퍼즐 특성의 경우,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3가지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분석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되었던 건강보험의 긍정적 역할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또한 은퇴준비 제약비용 중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은  $p < .1$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자녀와 관련된 지출 부담보다는 주거와 관련된 지출 부담이 연금가입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표 6〉 1+2+3층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기준: 1+2층 가입형(N=157) , N=1,138)

특성	변수	구분	연금 가입구조	
			1+2+3층 가입 (N=260)	
			b	Exp(B)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여성 (남성 기준)		.280	1.323
	연령		-.048**	.953
	이혼 및 사별 (기혼 기준)		.313	1.367
	최종학력 (고졸 이하 기준)	전문대졸 이상	1.010*	2.746
	종사상 지위 (무급가족 종사자 및 기타종사자 기준)	고용주 및 자영업자	1.953	7.052
		상용직 임금근로자	.343	1.409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872	2.391	
재무적 특성	총자산 (단위: 천 만원)		.005*	1.005
	부채 잔액 (단위: 백 만원)		-.002	.998
연금피플 특성	건강위험인식		-.064	.938
	가입한 보장성 보험 개수		.222**	1.248
	상속 의향 있음 (없음 기준)		.355	1.426
은퇴준비 계약비용 특성	월 평균 소득대비 교육비 비중		.008	1.008
	미혼자녀 있음 (없음 기준)		.106	1.111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		-.035+	.966
-2 Log likelihood		Coxand Snell $R^2$	2.916.99	.422
$\chi^2$		Nagelkerke $R^2$	623.78***	.44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연금피플 특성, 은퇴준비 계약비용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비은퇴자의 연금가입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모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주목한 연금피플 특성과 은퇴준비 계약비용 특성이 연금가입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여부를 바탕으로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을 알아본 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연금 가입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공적연금의 가입율이 84.1%로 가장 높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37.2%와 47.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사적연금 가입 현황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인 보유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한편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를 분류한 결과, 공적 연금만 가입한 가계가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층과 3층 연금에 동시에 가입한 공적+개인연금형과 1, 2, 3층의 연금에 모두 가입한 3층 보장형이 동일하게 22.1%로 그 뒤를 이었으며, 11.2%의 응답자는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전희정·임란, 2011)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무연금형의 비중은 더 적고, 3층 보장형의 비중은 더 높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연금가입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1.2%의 응답자가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연금퍼즐 특성,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연금가입에 취약한 계층을 살펴보면, 기혼에 비해 이혼 및 사별의 혼인상태에 있는 응답자와 학력수준이 고졸 이하로 낮은 응답자 및 고령자의 연금 미가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 및 기타종사자에 비해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퍼즐 특성에서는 가입한 보장성 보험 개수가 3가지 유형의 개별연금 가입여부에 모두 영향을 미쳐 가장 강력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의향과 건강위험인식 또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한 보장성 보험개수가 많을수록 공적, 퇴직,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위험에 대비한 의료비 마련의 필요성이 연금가입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상속의향이 있으며 자신의 건강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소비자일수록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제약비용의 경우,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이 자녀와 관련된 부담에 비해 연금가입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셋째,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특성을 단계적 이행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미혼 자녀가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의향이 있는 경우 무연금형에 비해 공적연금 가입형에 속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비해 남성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공적연금에 퇴직연금까지 추가하여 가입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연령이 높아지고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을수록,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적을수록 공적연금에 개인연금까지 추가하여 가입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금유형에 가입한 다층보장형의 영향요인의 경우, 연령이 낮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며 총자산이 많고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개인연금까지 가입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연금퍼즐 특성과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을 포함하여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론 및 경제학적 모형을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연금가입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먼저 연금퍼즐 특성 중에는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즉,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건강 악화로 인해 야기될 의료비 마련을 위한 예비적 저축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서 연금가입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건강보험 관련 변수는 기존의 연금퍼즐 관련 문헌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변수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변수가 연금가입 의사결정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후 정책적으로 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개인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료비용의 지출 충격에 대비하여 잘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이들은 연금 가입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연금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금가입 자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보험의 가입 및 보장 상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상속의향과 미혼자녀가 존재할 경우, 가장 기본적인 연금 유형인 공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욕구가 연금가입을 통한 노후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은퇴자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장수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노후준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녀에게 부양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부모 부양의 가치관이 퇴조하고 있는 사회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재무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상속 및 지원의 욕구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의 경우, 월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연금가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져 주거비 부담이 연금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 자녀와 관련된 비용부담 변수의 경우 자녀의 결혼비용을 대리측정한 미혼자녀의 유무만이 공적연금 가입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을 뿐, 교육비부담은 유의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가계의 은퇴준비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비용부담 중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연금가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연금가입 행동은 아니지만 가계지출 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

행연구(이혜자, 2013)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금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의료 보험시장에 대한 고려와 마찬가지로 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연금가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서 단일하게 연금시장에 대한 접근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시장, 주택시장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중심변수 이외에도 연금가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특성 변수들을 통해 연금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력이 낮은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연금가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젊은층이 연금 가입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여 기간이 점점 늘어가는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연령층의 경우 특히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연령층의 연금가입을 통한 노후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은퇴 이후에 보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학력 수준이 낮은 응답자 또한 학력수준이 높은 응답자에 비해 소극적인 연금가입 행태를 보여 이들에 대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이들은 정보의 탐색 및 활용의 측면에서도 젊은 층이나 고학력자와 비교할 때 취약성을 나타내므로 연금가입을 유도함에 있어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무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연금제도의 필요성 및 특성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연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를 지니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다층연금체계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단계적 이행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지만 동일한 대상을 바탕으로 단계적 이행을 추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조사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후 패널 데이터 등의 확보를 통해 개인의 연금가입 구조의 변화를 추적하여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단계적 이행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면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의 한계로 총 8가지 유형 중 일부 연금가입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조사자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사적연금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사회의 상황으로 인해 해당 유형의 가입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후 연금 시장이 보다 성숙되고, 모든 유형에 충분한 자료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체 유형을 바탕으로 연금가입 의사결정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작업도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에는 본 연구에 포함된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연금가입의 목적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기대 은퇴연령이나 예상 은퇴생활비 등의 은퇴관련 요인이 연금가입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까지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만 설명되고 있는 연금피플관련 특성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연금가입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경제적 모델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통해 현실 적용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성숙(2009), 50대 비은퇴자의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가입 구조와 특성, *사회과학논총*, 28(1), 27-50.
- 안수란(2008), **임금근로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가입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경우(2013). 연금퍼즐에 관한 연구: 건강위험, 종신연금의유동성부족, 생존가치의 역할을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73, 75-107.
- 이용하(2011),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1(2), 1-27.
- 이혜자(2013), **가계지출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전희정·임란(2011),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와 특성 분석, *보험學會誌*, 90(11-12), 107-135.
- 주소현(2011), 개인연금 보유 및 연금불입액의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22(3), 183-206.
- 최현자·주소현·차경욱·백은영·김민정·조혜진·김정현·양재영(2014), **은퇴설계전문가 교육교재 2권**, 서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 통계청(2014), **2014 고령자통계**, 서울, 통계청.
- Brown, J. R(2001), Private pensions, mortality risk, and the decision to annuitiz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2(1), 29-62.
- Friedman, B. M., and Warshawsky, M. J(1990), The cost of annuities: Implications for saving behavior and beques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1), 135-154.
- Holzmann, R., Hinz, R. P., von Gersdorff, H., Intermit, G., Impavido, G., Musalem, A. R., Subbarao, K. and Schwarz, A(2005).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World Bank, Washington, DC.
- Hurd, M. D(1987), Savings of the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298-312.
- Hurd, M. D(1989), Mortality risk and bequest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779-813.
- Inkmann, J., Lopes, P., and Michaelides, A(2011), How deep is the annuity market participation puzzl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4(1), 279-319.
- Lockwood, L. M(2012), Bequest motives and the annuity puzzl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5(2), 226-243.
- Morgan, L. A., & Eckert, J. K(2004), Retirement financial preparation: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6(2), 19-34.
- Pordes, A(1994),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World Ban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aari, M. E(1965), Uncertain lifetime, life insurance, and the theory of the consumer.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137-150.